

◎ 서울의 미래

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확실하여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미래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.

건축가의 입장에서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코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, 우리가 앞으로의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.

현재까지 우리는 미래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생각에는 유토피아와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.

첫째, ‘어떠한 사회를 꿈꾸는가’와 같은 사회에 대한 판단

둘째, ‘

셋째,

지금까지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보면 대체로 그것은 수정주의나 개량주의로써 본격적으로 바꾸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은 부분들을 서서히 개량해 나가는 개념이 있고,

‘현재가 곧 미래이다’

미래는 항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.

, 그래서 그것을 역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태도가 분명해야 하는데 수정주의든가 혁명적이든가가 될 수 있는데, 그래서 시간의 개념에 관한 한 늘 < > ! 있으며 현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숨겨져 있다.

반복과 차이— 서울의 태도

반복과 차이는 본인이 건축을 하는 태도이다.

,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직선상의 삶을 사는데 항상 현재 속에 있으며, 그 현재 속에는 늘 과거가 녹아 있고 미래가 앞에 와 있는 것이다. 그런 관점에서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사람들은 미래라고 하면서 은근히 많은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. 이 도시가 가진 현재적인 가치 중의 하나, 즉 미래라는 것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일상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.

일상성의 감옥

일상성은 반복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감옥 같은 것이다. (factorial)

의 공간이다. 그것은 천문학적 숫자의 공간의 중첩을 얘기하며 그것이야말로 도시가 가지는 매력이자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.

즉 도시는 엄청난 구성인자들의 복합체이므로 우리는 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의 개개의 행위

를 다 읽을 수 없으며,
울은 알 수 없는 곳이다.

. 그래서 서

도시— 익명성의 공간

도시의 매력 중의 하나는 익명성인데 서울을 장소로 보거나, , 사람을 주체로 보거나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서울을 손아귀에 쥔 것 같은 환상의 충족감에 산다. 과거 서울은 사람들에게 서울에만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충만한 도시였다.

서울시민은 현재 수많은 지방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등지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들은 어딘가에 정착해서 사는 것보다 늘 유랑하고 해체하며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. 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가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‘장소’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늘 마음 속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며 늘 여기저기를 이동을 하면서 살아간다.

가족 이기주의— 공동성의 해체

따라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가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으며, 그것은 때로는 가족 이기주의로 변질되기도 한다. 이 사회가 탈산업화되어 간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공동성을 해체하는 하나의 징조이다. 다시 얘기하자면 서울은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점차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인 서비스업 위주로 하면서 네트워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.

- : 생산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노동자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생산의 과정이 체인과 같이 맞물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서 대량생산, 대량소비하는 사회

- - : 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취함

포스트 포디스트 사회

단국대 조영래 교수는 한국 사회를 포스트 포디스트사회로 규정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< 1대문> < > .

‘왜 사는가’를 묻지 않는 사회 시스템

이에 대한 질문이 사회는 어떠한 시스템에 근거해서 작동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의 질을 가져올지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냥 시스템만 가동시키는, 즉 계속 건설하고 시스템을 작동시켰지만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지 못하고 살아왔다. 그렇게 된 이유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직과 효율에 대해서만 얘기해 왔기 때문이다. 사람들은 도시 문제를 얘기할 때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은 생략한 채 오직 교통 문제만 있는 것처럼 오도해 왔다.